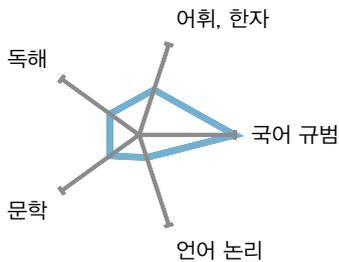


2017 서울시 9급 B책형 국어 총평 및 해설

수험생 여러분,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수험생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총평 및 해설을 올려 드립니다. 더 자세한 총평 및 해설 자료, 영상은 [지안합격예측서비스](#)에서 제공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 서울시 9급 영역별 분석



영역	문항 수
국어 문법, 규범	6
고전 문법	5
어휘, 한자	4
독해	2
현대 문학	1
고전 문학	2

1. 총평

2017년도 서울시 국어 시험은 국가 직 시험보다는 어렵고 지방 직 시험보다 다소 쉬운 난도의 문제들로 구성되었다고 생각한다. 국어 규범과 관련된 문항에서 8문항, 어휘에서 2문항, 독해에서 3문항, 문학에서 3문항, 한자에서 2문항, 언어 논리에서 2문항이 출제되었다.

‘표준발음, 띄어쓰기, 파생어, 로마자 표기, 고전문법’등은 기존의 기출 문제를 살펴보다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영역의 기본 문제였다. 또한 ‘치숙, 별 헤는 밤’등의 문학 작품도 평상시 학습을 꾸준히 해왔던 수험생이라면 풀 수 있는 난도의 문제였다. 문학의 경우, 개별 작품을 중심으로 학습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문학 감상 방법을 꾸준히 연습해본다면 낯선 작품의 문제를 출제되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해결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다만 언어 논리(오류)에 관한 내용은 평상시 구체적인 지문으로 연습하지 않았다면 혼동될 수 있을 내용이었다. 기존의 기출 영역에만 선입견을 갖지 말고 국어의 모든 영역에 조금도 소홀함 없이 기본 내용을 충실히 익히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한자의 경우도 기출 되었던 내용에서 반복적으로 출제된 문제들이었다. 꾸준히 한자 학습을 해 왔던 수험생이라면 평이하게 풀 수 있었을 것이다.

수험생은 항상 불안하다. 그래서 각 시험에 따른 준비 방법을 궁급해 하고 학습을 하면서도 불안해한다. 그러나 불안해하면서 이를 수 있는 일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다. 과년도 기출 방향에 마음이 흔들려서 어느 한 영역을 소홀히 여긴다면 합격은 항상 나오는 먼 일이 된다. 자신을 믿고 모든 내용을 충실하게, 꼼꼼하게 보려는 마음으로 처음부터 접근한다면 시험의 난도가 상승하더라도 어느 순간 시험에 합격해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모두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서울시 9급 해설 영상관련 안내」

서울시 9급 기출 해설이 영상으로도 촬영 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안공무원학원 홈페이지의 배너를 통해서 접속 가능합니다.

「2018년 시험대비 국어 기본이론반 안내」

7월 개강

강의명	2018 시험대비 공무원9급 공통과목 윤서영 국어 기본이론반(학원실강)
강의시간	홈페이지 참고

2. 해설

문 1. <정답> ①

<해설>

①은 중간항이 없는 모순 관계이다. (살다 - 죽다) 이에 반하여 ②, ③, ④는 중간항이 있는 반대 관계이다.

문 2. <정답> ①

<해설>

'개살구, 헛웃음'은 접두사가 결합된, '낙시질, 지우개'는 접미사가 결합된 파생어이다. ①의 건(乾)은 마른, 말린의 뜻을 의미하는 접두사로서 '건어물'은 파생어이다. ②, ③, ④는 합성어이다.

문 3. <정답> ④

<해설>

ㄹ은 한글 창제 당시의 초성 17자에 포함되지 않은 글자이다.

문 4. <정답> ①

<해설>

<보기>는 '군중에 호소하는 오류'에 해당한다. ①은 군중에 호소하는 오류이고 ②은 무지에의 호소하는 오류, ③은 부적합한 권위에 호소하는 오류, ④은 사적관계에 호소하는 오류에 해당한다.

문 5. <정답> ④

<해설>

지문은 채만식의 <치숙>이다. '나'라는 화자가 아저씨를 비난하는 형식으로 소설이 전개되지만 일제의 현실에 타협하려는 '나'는 오히려 비판의 대상이 된다. 이와 같은 믿을 수 없는(신빙성 없는)화자는 독자로 하여금 서술자를 비판적으로 보게 하는 문학적 효과가 있다.

〈채만식 - 치숙〉

- ▣ 갈래 : 단편 소설. 풍자 소설
- ▣ 배경 : 일제 강점기의 서울
- ▣ 성격 : 식민지의 시대 상황이 사실적으로 묘사되고 있는 소설로서 풍자적 성격이 강함
- ▣ 표현 : ① 속어나 비어 등을 많이 사용하여 사실성을 높이고 있음. ② 대화 문체를 구사하여 나와 아저씨와의 의식상의 괴리를 극명하게 드러냄
- ▣ 주제 : 일제에 순응하려는 '나'와 사회주의 사상을 가진 아저씨의 갈등
- ▣ 의의 : 풍자의 심층화를 통해 식민지 사회의 병리적인 현상들을 역설적으로 드러내는 데 성공한 작품이다.
- ▣ 인물 유형 : 평면적 인물, 개성적 인물
- 나 : 화자. 일본인 상점의 점원으로서 현실에 만족하는 인물로 일제에 동화되어 가겠다고 생각함
- 아저씨 : 사회주의를 하다가 옥살이를 하고 이제는 병이 들어서 폐인이 되다시피 한 지식인으로서 일제하에서 무기력함.
- ▣ 수사 : 생략. 문답. 억양. 도치. 반복 등
- ▣ 표현 : ① 속어나 비어 등을 많이 사용하여 사실성을 높이고 있음. ② 대화 문체를 구사하여 나와 아저씨와의 의식상의 괴리를 극명하게 드러냄
- ▣ 문체 : 풍자적. 반어적인 대화체. 독백체. 비어와 속어가 쓰인 대화적 문체. 경어체 혼용
- ▣ 기법 : 칭찬 - 비난의 역전(반어적) 기법(표현은 비난, 심층엔 긍정)
- ▣ 구성 : 역순행적 구성
- 발단 - 사회주의 운동을 하다가 옥살이하고 폐병에 걸려서 알아 누워 있는 오촌 고모부아저씨 소개
- 전개 - 아주머니의 고생담과 '나'의 성장 과정
- 위기 - 철저히 일본인으로 동화되어 살아가겠다고 생각하는 '나'
- 절정 - '나'와 아저씨의 대립
- 결말 - 아저씨에 대한 '나'의 실망
- ▣ 출전 : 동아일보(1938.3.25~30)

문 6. 〈정답〉 ②

〈해설〉

- ① 선릉[설릉] : Seolleng
- ② 학녀울[학녀울 → 항녀울] : Hangnyeoul
- ③ 낙동강[낙동강] : Nakdonggang (된소리는 로마자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
- ④ 집현전[지편전] : Jiphyeonjeon (용언에서의 자음 축약은 로마자 표기에 반영하나 체언에서의 축약은 반영하지 않는다.)

문 7. 〈정답〉 ③

〈오답풀이〉

- ① 기본형'붙다'이다. (붙는) ② 안울림 소리 뒤의 '하'는 통째로 생략된다.(넉넉지) ④ '로써'는 도구, '로서'는 자격을 의미한다. 여기에서는 자격의 의미로 사용되었다.(로서) ③은 적절하게 잘 사용되었다.

문 8. <정답> ①

<해설>

띄어쓰기는 <독립신문>에서 처음 시도되었고, 1933년 <한글 맞춤법 통일안>에서 규범화되었다.

주격조사'가'는 임란 이후부터 사용되었다. 공식적으로 '·'는 1933년에 폐지되었다. 'ㅂ'는 '오/우'로 변하였다.(현대 국어의 ㅂ 불규칙 용언의 근원이 된다.)

문 9. <정답> ③

<해설>

이 글의 핵심적인 내용은 '선비의 지조와 절개'이다. 따라서 ㉠이 맨 앞에 오고 그 예에 해당하는 내용(최늘, 죽죽)이 이어지는 것이 적절하다. 따라서 정답은 ③이다.

문 10. <정답> ③

<해설>

③'별'은 시적화자가 지향하는 내적 세계이다. ① 독백체의 작품이고, ② 현실 비판적인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④ '별'은 순수한 대상이지 욕망을 상징하지는 않는다.

<윤동주 - 별 헤는 밤>

- ▣ 윤동주(尹東柱 1917-1945) 시인. 독립운동가. 북간도(北間島) 출생. 용정(龍井)에서 중학교를 졸업하고 연희전문을 거쳐 도일. 도시샤[同志社]대학 영문과 재학 중 1943년 여름방학을 맞아 귀국하다 사상범으로 일경(日警)에 체포되어, 1944년 6월 2년형을 선고받고 이듬해 규슈[九州] 후쿠오카[福岡] 형무소에서 옥사했다.
- ▣ 갈래 : 자유시, 서정시
- ▣ 율격 : 내재율
- ▣ 성격 : 회상적
- ▣ 표현 : 맑고 옛된 감각과 구김살 없는 서정성
- ▣ 구성 : 시간적 추이
 - └ 1연 ~ 5연 : 가을 밤 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아름다운 상념에 잠김(추억의 과거)
 - └ 6연 ~ 7연 : 현재의 우울한 상황(현재적 상황)
 - └ 8연 ~ 9연 : 자아의 현실적 고뇌 및 자아성찰
 - └ 10연 : 자아의 현실 극복 의지(미래지향의지)
- 내용상
 - └ 1~3연 : 끝없는 상념
 - └ 4~7연 : 상념의 구체적 내용
 - └ 8~끝 : 나라 잃은 민족의 비애
- ▣ 제재 : 별과 과거의 추억
- ▣ 주제 : 아름다움과 순수함에 대한 동경, 고향에 대한 동경과 자아 성찰
- ▣ 출전 :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1948)

문 11. <정답> ㉔

<해설>

㉔ 굴적대다(의미 : 몸이 둔하고 느리게 자꾸 움직인다)의 의미가 잘못되었으므로 정답은 ㉔이다.

문 12. <정답> ㉔

<해설>

- ① 토의(討議) : 칠 토, 의논할 의
- ② 사고(思考) : 생각할 사, 상고할 고
- ③ 선택(選擇) : 가릴 선, 가릴 택
- ④ 준거(準據) : 평평할 준, 의지할 거

문 13. <정답> ㉔

<해설>

㉔은 첨가 현상(ㄴ첨가)이고 ①은 비음화, ②는 유음화, ③은 된소리되기(경음화)로서 대치에 해당한다.

문14. <정답> ㉔

<해설>

빈 칸에 들어갈 내용의 앞, 뒤를 살펴보면 쉽게 답을 확인할 수 있다. 빈 칸의 앞부분에서는 '인간의 활동과 자연 내부에서도 대립, 통일이 있다'는 내용이 있고, 빈 칸의 뒷부분에서 변증법적 지양과 일어난 합일을 지향했다는 내용이 나오므로 정답은 ㉔에 해당한다.

문 15. <정답> ㉔

<해설>

돌아누워 자세를 다르게 하니 산이 다르게 보였다는 내용을 바탕으로 살펴보면, 이 글에 이어질 내용은 틀에 박힌 고정관념을 극복하자는 내용이 가장 적절하다.

문 16. <정답> ㉑

<해설>

㉑ 가뭄에는 도량을 쳐야 소용없고 ㉔ 까마귀는 목욕해도 여전히 까맣기 때문에 소용없다는 의미이므로 정답은 ㉑ 헛수고이다.

문 17. <정답> ㉔

<해설>

- ① 도야(陶冶) : 질그릇 도, 불릴 야
- ② 개전(改梭) : 고칠 개, 고칠 전
- ③ 쇄도(殺到) : 빠를 쇄, 이를 도
- ④ 골몰(汨沒) : 빠질 골, 가라앉을 몰

문 18. <정답> ①

<해설>

① 창밖은 합성어로 붙여 써야 한다. ② '우단(의) 천'(우단(羽緞) : 깃 우, 비단 단 - 동일어 : 벨벳)에서 조사가 생략된 형태이므로 띄어 쓴다. ③ 아라비아 숫자에 이어지는 단어는 띄어쓰는 것이 원칙이나 붙여쓰도 허용한다. ④ 부정어 앞에 위치하는 '밖에'는 조사이므로 붙여 쓴다. 따라서 정답은 ③이다.

문 19. <정답> ㉓

<해설>

㉑, ㉒, ㉔의 주어는 환자이고, ㉓의 주어는 우리이다.

문 20. <정답> ㉒

<해설>

㉑ 1970년대, ㉒ 1920년대, ㉓ 1950년대, ㉔ 1930년대이므로 정답은 ㉒이다.